



동양사상근원예림역 현대를 거역하라  
우리시대의 이복학자

《사서삼경을 읽다》 낸 중문학자 김경일

학자 김경일(46·상명대 중어중문과 교수)은 책을 낼 때마다 사회적 반향을 크게 일으키는 민감한 촉수의 저자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에서 그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유교를 혹독하게 비판함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을 색다른 방향에서 모색하는 계기를 만드는 한편, 찬반양론의 격랑에 휩싸였다. 《나는 오랑캐가 그림다》에서는 우리는 오랑캐의 자손이고 21세기 한국의 생존전략을 생명력·포용력·창조성·역동성으로 함축되는 오랑캐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 지식인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가 이번에는 《사서삼경을 읽다》를 냈다.

《사서삼경을 읽다》는 제목으로만 보면 전작에 비해 큰 특징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불경(?)스럽다. 갑골문자를 분석하고 '추체험적 해석'이라는 방식을 통해 사서삼경을 '라이브'하게 읽어낸 것이다. 가령 《논어》에 나오는 '學而不思則罔 학이불사즉망, 思而不學則殆 사이불학즉태'라는 문장에 대해 김 교수는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미련을 떨게 되고, 생각

만 키운 채 배우지를 않으면 사고 치기 십상이다"라고 풀이한다. 기존의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는 식의 해석은 '해골 알'과 '자기 이심'로 구성된 '태깅'가 2500여년 전 '온몸이 망가져 버릴 것'이라는 뜻의 당시 유행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해석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김 교수는 다소 튀거나 어색하더라도 나름대로 '오리지널리티'를 복원하고 여기에 21세기 한국 현실을 접목해 색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동양사상은 기본적으로 사서삼경을 건드리지 않고는 그 바닥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원전은 근원인 셈인데 그 근원을 읽어야 자기 나름의 가치관

과 통찰력이 생기고 남과 같지 않은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할 수 있죠.”

같은 맥락에서, 한국사회는 인문학의 위기에 직면한 게 아니라 인문학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한다. 특히 ‘언어’를 모르는 한국인 인문학자의 위기다. 학자로서 동아시아의 문화를 탐구하려면 고대 한문부터 갑골 문자, 만주어 등 과거 이 지역에서 사용했던 언어를 이해하고 나름의 해석법을 갖춰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역량을 갖춘 학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대학 강의가 재미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의하는 사람의 체험이 녹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못 찾게 없는데 어디서 들어본 듯한 말을 되풀이해선 학생들의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없죠. 칠판에 만주어를 쓰면 학생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낯설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을 제시해야 강의실에 활력이 생깁니다.”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기는 했지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도발적인 제목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대한 그의 폭넓은 관심과 타협하지 않는 소신 때문이었다. 이런 성향의 김정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 일화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다. 6·25 참전 용사였던 그의 담임은 어린 학생들에게 폭력을 예사로 휘둘렀다. 더 이상 학교 가기 싫었던 그는 학교를 지나쳐 무작정 발걸음을 옮겼다. 터벅터벅 서울 아현동 고개를 넘어 그가 도착한 곳은 남대문이었다.

“뜻하지 않은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상의군인과 거지들이 몰려다니고, 여기저기 온통 싸움판이었습니다. 한쪽엔 족발, 순대, 국수 따위 수많은 먹을거리들이 널려 있었죠. 지금도 그 시장통 풍경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 그의 하루 수업도 끝이 났다. 부모님은 한 달 반이 지난 후 담임의 얘길 듣고서야 아들이 장기결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두 번째는 대입 재수를 할 때였다. 그는 일산의 한 시골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남대문 시장처럼, 공부보다 더 그를 사로잡은 게 있었다.

“아카시아나무 숲속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눈처럼 떨어져 내렸는데 그 속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누나의 책을 가져다 읽었습니다. 시와 산문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색훈련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죠. 책을 읽고 사색함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제 아카시아나무 밑에서 시를 쓰지 않는다. 남몰래 시장 구경을 다니는 것도 아니다. 현재 그가 가장 힘을 쏟고 있는 것은 한자의 역사를 밝히는 책의 마무리와 올 1월부터 <월간 중앙>에 기고하고 있는 ‘탁세청수(濁世淸水) 칼럼을 쓰는 일이다. ‘탁세청수’는 원고지 100매 분량으로 사회를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칼럼이다. 1월 조선족 문제를 시작으로 사교육 문제, 청년실업 문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한 정치 트렌드 문제를 다뤘다. 세상에 대한 관심과 학자로서 현장경험이 중요하다는 김 교수 특유의 인식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물론 학교 강의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 온 서예도 그만 뒀다. 대학교수로서 서예를 즐긴다는 것은 호사라는 판단에서다. 대신 그 시간에 매년 새로운 강의교재를 개발한다. 그의 강의를 재미있기는 하지만 학생

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곤욕을 치러야 한다.

“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경험해야 할 사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싶고요. 피곤할지 모르지만 엄격하게 가르치는 게 그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이지만 대만에서 9년간 공부해 갑골 문자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김 교수는 강단에서 쓰는 것도 책을 출판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한국사회는 그의 능력 이외의 것들을 요구했다. 다행히 상명대학교는 다른 조건을 보지 않고 그의 능력을 알아줬다. 그가 상명대를 떠나지 않는 이유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내기 전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교에서 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정도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당신이 학교에 있을 때 학교가 당신을 영예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학교를 떠나면 당신이 학교를 영예롭게 하십시오’라는 대만 중국문화대학의 교훈이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단지 네 이력만 보고 널 뽑은 학교인데 어떻게 저버릴 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마음을 고쳐먹었죠. 학교에 기대지 말고 제가 학교를 빛내자고요.”

김 교수 자신은 한국을 애증이 교차하는 나라로 받아들이면서도 역시 젊은 세대들에게서 희망을 찾는다. 월드컵 응원 열기와 촛불시위에서 알 수 있듯 그들의 얼굴엔 응어리나 분노보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열망과 순수함이 있어 희망을 가져도 좋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젊은 세대들에게 긴 호흡으로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부탁한다. 그 길이 책을 깊이 읽고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에 있다고 학자 김정일은 말한다. **이문**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사서삼경을 읽다》

김경일 지음 | 바다출판사 | 422쪽 | 값 12,800원